

# 월/요/광/장

김유선



여자대학교 인문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특강 자리에서였다. 꿈에 부풀어야 할 신입생의 질문은 우리나라 교육현실의 문제점을 그대로 지적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현실을 어떻게 부정하겠는가. 능력위주의 드림소사이어티(Dream Society)로 답변했지만 드림은 부재의 소망이다.

두 번째 질문은 인문학의 소멸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우리의 장래는 과연 보

## 대학 신입생 김양의 고민

장되느냐는 것이었다. 송재문 소설 같은 큰 사건이 생길 때만 인문학자는 사회를 진단하는 한 말씀으로 TV에 잠깐 뜨신다. 평소에는 연예인과 고액 연봉인들 만이 우상이 되는 시대다.

돈과 오락의 시대여서 초등학교 때부터 꿈도 그 범주다. 어린 아이들 대부분이 연예인이나 사장이 되겠다. 문예창작과 학생들 대부분도 돈 안 되는 시인이나 소설가보다는 돈 잘 버는 방송작가가 꿈이요, 지연 등 끈이나 '빨리'에 끌려가는

은 문학의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는 원칙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에 대한 학문인 인문학을 소홀히 하는 사회는 사람다운 세상을 거부하는 사회다. 송재문 같은 기념비적인 것을 상상하면 조상을 잃은 것과 같은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고 프로이드는 말했다. 송재문은 곧 인문학이었다. 거기 역사와 문화가 있었고 그것이 소실되자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를 우리는 실감했다.

세 번째 질문은 학점과 그의 활동의 비중에 관한 것이었다. 대학은 교양과 창조

를프 옌센은 미래를 뇌의 감정 중추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예견한다. 이성과 언어를 관장하는 대뇌피질이 지배하던 지금까지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은 감성계와 상상력 개발을 위해 선두에서야 필연성이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등록금이 너무 많다는 질문이었다. 학생은 부끄러움을 참으며 엄마 아빠가 다 벌여도 남매의 등록금이 모자라는 자기 집안 사정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다 같이 슬퍼졌다. 가슴이 아렸다. 누가 답변할 것인가. 인구 수가 줄어드니 제발 아기 좀 낳으라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학기마다 등록금 문제로 휴학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허수인가.

특강을 마치고 나오는 대학 교정에는 매화가 수수알만큼 부풀어 있었다. 멀지 않아 이 교정에도 매화 향기 가득하리라. 소나무에 드는 바람소리를 듣게 하고 매화의 은근한 향을 맡게 하여 아이들의 심성을 교육했다는 "풍임속 암향의 전통이야 교육법이 있었지, 크게 들숨을 쓴다. 아직 피지 않은 매화 등걸에서 암향이 나는 듯하다. 이것도 지각 상상력이다. <(사)여성문제연구회 회장·장안대학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 설

## '이명박 정부'에 거는 기대와 주문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은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건국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뛰어 넘는 '선진화 시대'를 활짝 열어가길 기원한다.

새 정부의 출범은 진보에서 보수, 민주와 세력에서 산업화 세력으로 10년간의 정권교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건국 60년을 맞아 이념구도를 뛰어 넘는 새로운 '실용주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 시대적 소명은 경제 회생

국민이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시대정신이라고 불렀던 경제 회생에 대한 목마를 때문이었다. 새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릴 책무를 안고 있다.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 일류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창년 실업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심정은 절박하다. 국민은 소모적인 이념논쟁이나 정치공방을 접고 창조적 실용주의 사고를 통해 경제를 살려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과거 성장시대와는 달리 성장의 과실이 서민들에게까지 골고루 돌아가는 새로운 개념의 시장경제를 바라고 있다.

안보문제는 경제 살리기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안보가 불안하면 경제 살리기는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는 '피주기'식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의 반대 정서를 고려해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전제로 한 '전략적 상호주의'를 채택했다. 우리가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도 안 되지만 북한을 너무 자극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균형외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백년대계인 교육문제가 부담이다. 영어 공교육, 자율형 사립고, 대입 3단계 자율화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그 취

지가 아무리 좋아도 준비가 미흡하면 실패하기 쉽다. 전문가, 특히 반대편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새 교육정책이 '5년 대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운하 등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공약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서둘러선 국민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에 대한 성원과 기대 못지 않게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내각에 대한 편향 인사는 '고소영'이나 '강부자' 등의 비아냥을 낳고 있다. 특히 극명하게 드러난 '호남 소외'는 지난 군사정권 시절의 망국병인 지역차별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례서는 국민통합은 이를 수 없다. 국민통합 없이는 경제살리기도,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하다. 새 정부는 국민통합에서 출발해야 한다.

### 국민통합 최우선 해야

대내외적 여건은 만만치 않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주택 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경색과 유가·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 급등, 스테그플레이션 조짐 등으로 국내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경제에 대한 불안정감이 확산되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5년 후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無 等 鼓

노무현 정부 5년동안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각료급 공무원은 모두 5명.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현재 재정부장관, 강동성 건교부장관, 최영도 인권위원장 등이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는 논문표절 의혹으로 낙마했다. 한나라당은 당시 "그렇게 사람이 없나"라고 비아냥냈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장대환, 장상씨는 총리 후보로 선임됐으나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 나라당은 두 총리 후보의 부동산 상속과 매입, 위장전입, 재산 신고 누락 등 법적·도덕적 하자를 추궁했다. 홍준표 의원은 장대환 씨를 두고 "처벌 형량을 합치면 무기징역"이라고 비판했다. 시중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을 '강부자'(강남 땅부자)라고 부르고 있다. 통합민주당에서는 '부동산 투기 단속자 명단'이라고 극언을 했다.

15명의 장관 후보자 평균 재산은 39억1천378만원. 역대 정부 중 최고다. 돈이 많다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들이 공직자의 표상인 장관이라는 데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털어 놓는 변명이다. 전국에 40건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준호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서초동 오피스텔에 대해 "유방암 검사에서 아닌 것(음성)으로 나오자 남편이 감사하며 기념으로 사주었다"고 말했다. 수억원짜리 오피스텔이 부부끼리의 선물이라니 서민들이 들으면 약간 이 무너지 일이다. 외지인이 구입할 수 없는 절대농지를 보유한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한술 더 떴다. 박 후보자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분이요, 모든 선의 근원이다.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실용 모드에 빠져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오주승 사퇴1부장 jsoh@kwangju.co.kr

## '강부자' 전성시대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 법조 칼럼

이유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범죄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폭력범죄, 절도·사기와 같은 재산범죄가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별다른 생각없이 저지르게 되는 말 그대로 '생활 속의 범죄' 중 하나가 바로 교통관련 범죄다. 2006년 전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1만3천745건, 그 중 광주지역에서만 8천11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하루 평균 2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광주는 2006년의 경우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부상자 수가 256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물론 살면서 교통사고를 한 번도 겪

히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10대 중과실로 사고를 야기했거나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 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뺑소니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

## 교통사고, 그 후 조치들

여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도 친지나 친구 등 주변 사람이 교통사고로 고통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교통사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운전자는 피해상황을 파악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다. 또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교통사고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교통사고 후 취해야 할 조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아니, 이를 알고 있더라도 사고 발생 후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혹은 바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법은 단순한 교통사고와 도주차량 이른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다르게 취급한다. 먼저 그 법정형을 살펴보면, 단순

계없이 처벌된다.

지난 1월까지 등록된 차량의 숫자는 전국에 1천651만434대, 실제 운전여부를 떠나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2006년까지 2천985만564명에 이른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잠재적 혹은 실제적 운전자이고, 어느 날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사람으로서 당황하게 마련이며, 피해가 경미해 보이고 일이 바빠지면 사고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버릴 수 있다.

사고가 났을 때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던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는 극박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평생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하는 바람이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이혼하기에 앞서 부부관계 다시 생각해볼길

누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한다. 하지만 어떤 부부에게는 결혼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혼이 일반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혼을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TV연속극에서는 외도 이야기로 넘친다. 그것을 시청한 사람들은 "이렇게 구질구질 사느니 이혼해 버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또 하나의 잘못된 '이혼 경험 때문에 재혼

하면 더 잘 살 것이다'는 생각이다. 이는 착각일 뿐이다. 실제 재혼이 초혼보다 행복하기가 훨씬 어렵다고 한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들이 있다면 처음 결혼을 앞둔 사람처럼 결혼의 모든 것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볼 것을 권한다. 부부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위기를 극복하자. 그러면 단 1쌍이라도 이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연희·광주시 동구 충장로2가

# 기 고

우승구



우리는 그야말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것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요즘엔 그것도 모자라서 '창조적'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발달의 근저에는 지식정보화시대와 글로벌시대가 있다. 한지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시대요, 피를 말리는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 정보화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들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변화의 개념과 내용 및 속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힘

과 자녀 적성·소질과 진로와의 관계, 대화법, 양육 및 공부방법 등 등.

"아이의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풀린다"는 말이 있다. 또한 좋은 자녀는 '부모의 합작품'이라고 한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면 자녀들도 좋은 자녀가 된다. 좋은 부모는 자녀 삶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은 필수과목이다.

먼저 우리 부모들은 자녀교육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와 '한 자녀 올인' 시대를 맞아 평생 일하고 평생 배워야 하는 '부모 평생학습 시대'가 본격적으로

## 부모 평생학습시대

든 투쟁들을 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생각의 틀)과 새로운 목표와 전략이 필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사고와 방식대로 좁은 시장을 놓고 서로 피 튀기게 싸움을 벌이는 레드 오션(Red Ocean·또는 쥐뿔 경쟁)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만의 독특한' 분야를 개척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소위 블루 오션(Blue Ocean·또는 특성화) 전략으로 방향을 바꾸고 '소통과 섬김'의 '셀프 리더십' 덕목을 함양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다.

이러한 전략은 자녀교육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모 노릇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자 가장 보람된 일이다. 좋은 부모들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시대 변화와 직업

도래했다. 다자녀의 중요성과 다자녀 양육 노하우, 자녀교육의 우선 순위,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인성관과 가치관·세계관 등을 종합적으로 배워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프로 학부모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학부모교육을 분야별로 체계화시키고 전문 강사들도 양성하여 연중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학부모 교육 지원센터'를 두고 도서관과 평생교육시설들을 활용해 여러 곳에서 분산,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고 자녀와 학부모, 교사와 산업체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 교육가족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이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 가출 청소년 수용 센터 대폭 늘려야

청소년들의 가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여학생들의 가출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가출한 여학생을 여관에 가두고 몇 달 동안 하루 몇 차례씩 심매를 강요하거나, 노숙을 하던 10대 소녀가 돈을 훔쳤다고 오해한 남자 노숙자에게 폭행당해 목숨을 잃은 충격적인 언론 보도도 있었다.

가출 청소년의 수는 현재 1만4천여명에 이른다 한다. 이들 대부분은 부모의 폭행과 무관심 때문에 가출했다고 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

는 이들은 숙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범죄에 이용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출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센터는 전국적으로 24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예산과 인력을 늘려 노숙 상태로 방치된 가출 청소년이 쉽게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그들이 장기간 머물며 자립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절망은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까지 파괴한다'는 심정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석원·광주시 광산구 안창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